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기초의원 정당공천 않는 게 낫겠다”

광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9개 지역 유력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는 지난 22일 한나라당 중앙당사 대표실에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향후 정국과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올해는 경제살리기 총력 내년쯤에나 개헌 논의”

“호남 ‘텃밭’이라고 여기고 지역발전에 힘 쏟겠다”

— 취임을 축하한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전국 지역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지역발전방안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지방의 불안이 컸는데, 이 같은 불안이 말끔히 씻겨졌다.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 젊은이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행정구역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행정구역 개편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엄청난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당장은 지역의 발전공공체, 경제공공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뒀다.
—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에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당론을 정하겠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역기능이 클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초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하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정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준비 안 된 정권’이라는 지적이 맞다. 개인적으로 ‘연습 안 된 정권’이라고 본다.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충분한 연습기간 또는 수련기간을 거쳤어야 했는데 실기(失機)했다. 개혁 위주의 인수위가 돼 불안했다. 초기 국민적 반감은 인수위서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대통령직) 인수만 하면 되지 (일을) 많이 벌려서 책임이 크다. 실례로 농촌진흥청을 없앤다고 해서 전국 농촌의 반발을 샀고, 상

과에 급급해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공감을 얻지 못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단이 됐다. 잇따라 터진 약재에 대해서도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불신을 키웠다.
—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의정선거 비리로 소란스럽다.
▲장본인에 대해서는 ‘탈당권유’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가 탈당권유를 받고도 탈당계를 안내면 열흘 후에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당내 인사가 비리로 물러났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패배가 두려워 공천 안하는 것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비리가 있어 포기한다는 패배주의는 안 된다.
—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

행착오를 겪으면서 키워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전이다.
— 바람직한 개헌 방향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쯤에나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아직까지 호남은 한나라당의 불모지다. 호남에 대한 입장은.
▲호남 지역민께 ‘민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호남을 ‘텃밭’이라고 여기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호남 지역민도 마음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늬만 호남사람’이 아닌 진정한 호남출신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에 호남출신 인사를 중용했다고 했으나 ‘무늬만 호남인’ 인사를 기용, 오히려 반발을 샀다. 18대 국회에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정·관계에 중용해야 호남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호남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국지방신문협회·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경남 남해(70) ▲서울대 법대 ▲제13회 고시 사법과 ▲청주지검 검사 ▲부산고검장 ▲13·14·15·16·17대 국회의원 ▲민자당 대변인 ▲법무장관 ▲한나라당 원내총무·최고위원 ▲17대 국회부의장

별난 정몽준 최고위 불참

당 운영방식 항의... 한나라 새지도부 벌써 ‘배격’

한나라당 정몽준(사진) 최고위원이 21일에 이어 22일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고위당정회의 참석대상에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배제된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최고위원회의 불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참석했음에도 유독 최고위원들만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실 훈령을 근거로 최고위원 배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당이 총리실의 하위 기관이라는 말인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의 중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고위당정회의에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원들이 배제된다면 당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머침동안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정확한 복귀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불과 20일만에 나온 불협화음이다. 정 최고위원의 주장은 당헌상 최고위원회의가 ‘당내 최고 의결 집행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및 논의 과정에 최고위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당정회의와 관련한 규정이 당헌·당규가 아닌 총리훈령에 명시돼 있어 당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박희태 대표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고위당정회의 참석자는 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정돼 있다. 당 최고위원이 ‘당연 참석 대상’에서 빠져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주적 당 운영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20일 아침 중요 현안인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회의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고발할 듯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의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사건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고발 대상자는 기록물 반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재직 당시의 비서관과 행정관 등 총 8~9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료가 완전 회수되더라도 위법사실은 여전히 남게 되는데, 이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측은 지난 18일 기록물 반환을 둘러싼 국가기록원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밤늦게 하드디스크 14개와 백업용 파일 14개를 직접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겼으나 ‘지원(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선 반환을 거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이 검찰에 고발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한빛을 만나라! 합격하리라!” 서울시 지방직 대비 급소 일일 합격특강. 서울시 9급중앙선관위 문제풀이. 1개월코스 16만원(종합반). 7월 15일. 예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복구청알 234-0234.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한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7월 문제풀이특강, 8월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9월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10월 동형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연).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귀하의 직업!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안정된 公務員을 선택하십시오!! =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복 군 토 건 전. 정 행 무 세 원 찰 공 정 호 진 지 무 목 측 산. 금년 중·하반기 시험. 개강 8월 1일(주·야반 모집). 6개월(총)회원 80만원, 1년(총)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수강증 1개로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2개 강좌 동시수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www.donga.tv. T. 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